

윤정옥 선생님께

안녕하세요.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.

아울러 2000년 법정 관련 작업이 자주 늦어지게
되어 죄송하기만 합니다.

보내 주신 시간표는 남북이 약 30-40분을 같이
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
발표준비를 시켜서 해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
하여야겠습니다.

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고 안녕히
계십시오.

2001. 11. 22

조시현 드림.